

전북 비대면 관광지 7선 중 6곳, 방문객 ↑

도내 관광산업 어려움 속 새로운 가능성 시사
관광지 중 가장 선호하는 곳은 '김제 망해사'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전라북도 비대면 관광지 사업'을 통해 선정된 비대면 관광지 7선 중 6곳의 실제 전년 동기 대비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도내 관광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객 감소로 인해 도내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해 의미가 크다.



김제 망해사의 가을 전경. (사진=전북문화관광재단 제공)

T map 목적지 도착 건수 기반 빅데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28건(평균 2,000% 정도) 증가했다. 비교 기간은 2020년 가을과 2019년 가을로 약 18일 간, 비대면 관광지 6곳을 분석했다.

관광지 중 가장 선호하는 곳은 ▲김제 망해사 2,379건(5.702%)이며, ▲진안 메타세쿼이아길 2,039건(3.978%), ▲고창 운곡 탐사르스지 511건(737%), ▲무주 구천동어사길 273건(506%), ▲익산 용안생태습지공원 191건(1,264%), ▲부안 줄포만갯벌생태공원 160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북도 비대면 관광지 사업의 성과는 김제 망해사, 진안 메타세쿼이아길 등 유명 관광지가 아닌 곳의 여행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관광객 밀집도가 낮은 비대면 관광지

지 홍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문화를 제시하고, 성수기 유명 관광지에 편중된 여행객을 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한편, '전북도 비대면 관광지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인택트관광지 KTO-RTO 공동마케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도민 4,206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 관광객 밀집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전북도 '가을 비대면 관광지 7선'을 선정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번 전라북도 비대면 관광지 사업의 성과는 뉴노멀 시대 환경적 보전율이 높은 지역관광자원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이가립작 'Rest'

↑ 최빛나작 'The hill'

← 박경종작 '네모난 이야기 더미'

'나는 그리운 바다를 편안한 오늘에 헤엄치다'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내일부터 내달까지
창작레지던시 3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개최

(재)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은 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작가 7인의 '나는 그리운 바다를 편안한 오늘 번쩍번쩍 헤엄치다'를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레지던시 작가들 작품이 전주 팔복예술공장이란 공간에서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맥락을 어떻게 교감하고 활동했는지를 보여준다.

2018년부터 시작된 레지던시는 그동안 국

내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 올해로 30여명의 예술가의 새로운 창작과 실험을 지원했다.

이번 전시제목 '나는 그리운 바다를 편안한 오늘, 번쩍번쩍 헤엄치다'는 작가들이 본인의 작품과 연관된 단어를 제시한 후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조합해 각자 1년 동안의 작품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또한 참여 작가인 김성수, 김아라, 박경종,

서정배, 이가립, 이소연, 최빛나 7인의 작가는 참여하는 전시기간 내에 공개비평도 개최할 예정이다.

팔복예술공장 창작기획팀 나유미 팀장은 "2021년 한 해를 여는 첫 전시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작가의 도전 정신과 창작에 대한 열정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과 문화예술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는 그리운 바다를 편안한 오늘 번쩍번쩍 헤엄치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장수군, 공공미술프로젝트 작품 전시

지역 예술가 지원 일환 내달 2일까지

장수군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로 활력을 불어넣고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전시를 오는 2월 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은 '서로 바라보다'와 프로그램 '자연의 향기'며 장수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작품에는 16명의 지역작가들이 참여했으며 장수군민의 건강과 희망, 미래를 주제로 전라북도 미술작가들과 장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완성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전시형 프로젝트는 장수지역민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적 커뮤니티 활성화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으며 작가들은 지역문

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주제 선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작품의 다양성을 위해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바탕으로 작품 제작에 노력을 기울였다.

전시 기간 동안 작품이 설치 될 공간에 대해 주민 설명회 및 토론회가 진행되며, 이번 전시를 통해 급박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장수지역주민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이번 전시가 다양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단순 관람이 아닌 소통과 교감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가 직면한 불안과 위협에 맞서 '공공예술'의 효과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도시재생, 문화예술과 접목... 정부와 소통 강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전공은 도시공학을 했지만 문화예술 인프라가 많다.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 가운데 90% 이상이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했다."

20일 황희(54·사진)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깨가 무겁다. 일단은 내정만 된 거니까 청문회 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도시공학 박사' 출신 면모를 강조했다.

황 후보자는 "우리 지역 도시 재생을 할 때도 한 사람은 도시공학 전문가와 문화예술전문가를 함께 추천한다"며 "그동안 도시재생과 관련해 지자체 등에 강연할 때도 문화예술과의 접목을 자주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 성공한 도시에 관광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특히 "문체부는 공감력이 높고

부처간 협업 사항이 많은 부처로서 정부와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화관광 성과보다는 정부 정책 성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도시공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울 강서고와 송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에서 도시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민주당 내 최대 '신문 모임'인 민주당의 4.0 이사진이다. 그는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을 공익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 씨의 실명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황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이해관계 소통역량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문체부는 내정 전까지 예측이 안된 깜짝이 인사였다고 전했다. 장관 교체와 관련 박양우 현 장관이 유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박 장관이 쉬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 남성 후보로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